

## 새해엔 낙농가들의 웃음소리로...

2002년은 월드컵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는 해였지만 우리 낙농가들에게는 우유수급불균형 문제와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등으로 인해 전국 7,000여명이 과천에 모여 낙농인 대회까지 개최되는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한해였다. 이제 그런 악몽 같은 해가 끝나고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낙농육우농가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이마에서 주름살이 퍼지기를 기대하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가 무산되기를 반복하였다. 새해에도 우리 낙농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마음이 한없이 무겁지만, 제발 먹구름이 사라져 낙농가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새해의 바램을 몇 자 적고자 한다.

첫째, 낙농협동조합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낙농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낙농가들의 권익대변을 위해 탄생한 것임에도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일부 조합에서 지지하고 농가의 뜻과 역행하는 일들을 해온 것은 낙농가들의 권익대변을 외면한 처사이다. 직원들을 위한



박 철 용 / 경남도지회장

“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낙농육우농가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이마에서 주름살이 퍼지기를 기대하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가 무산되기를 반복하였다.

새해에도 우리 낙농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마음이 한없이 무겁지만, 제발 먹구름이 사라져 낙농가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새해의 바램을 몇 자 적고자 한다.

”

조합이라는 오명을 벗고 그 주인인 낙농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합으로 거듭나, 낙농가들이 조합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여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낙농진흥회의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금이라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낙농진흥법 개정 취지를 살려 본연의 임무인 우유수급조절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낙농가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농가와 다시 의논되어야 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낙농가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원유가 잉여된다고 무작정 가격인하 정책이나 생산축소 정책을 펼친다면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던 젖소개량이나 사양기술은 퇴보할 것이며, 목장 경영 긴축으로 경쟁력있는 낙농산업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넷째, 조사료 문제가 해결되어 야 한다.  
쌀 전업농 지원 수준의 농지매

매자금 또는 농지임대차자금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자금의 보조 및 면세유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조사료 재배는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조사료 문제 및 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사료 생산 기반은 열악하고 유제품 등은 개방된 상태에서 조사료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제도이므로 쿼터를 해제하거나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현안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최소한 위의 현안만이라도 해결되고 1만 2천여 낙농가들이 단합한다면 위기의 낙농산업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램을 가져본다. ☺

(필자연락처 : 055-251-2695)

## 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우리협회는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대변과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강력한 활동을 위해서는 전 낙농육우농가들의 회비납부를 통한 재원조달도 아주 중요합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회원의 대변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며 이는 회원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도 전국의 낙농육우농가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협회비 3만원을 납부하시어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社團 法人 韓國 酪農 肉牛 協會